

2026년 2월 1일 연중 제4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약속하셨으니,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작은 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38번 '행복하여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2,3; 3,12-13

화답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26-3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12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39번 ‘거룩한 어머니’

영성체 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번 ‘주님을 기리나이다’

2026년 2월 8일 주일 연중 제5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이 사명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하게 청합시다.

입당성가 : 57번 '우리는 목장의 백성으로세'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58,7-10

화답송 : ◎ 울곤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2,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3-16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성가 : 163번 ‘생명의 성체여’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며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증언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때 비로소 참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2026년 2월 15일 주일
연중 제6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15,15-2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2,6-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7-37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 성가 : 178번 ‘성체 앞에’

영성체 후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39). 율법의 완성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2026년 2월 22일 주일 사순 제1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원조들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입당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2,7-9; 3,1-7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5,12-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4,1-11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48번 ‘한 생을 주님 위해’

영성체 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유혹과, 그 유혹 앞에 나약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몸소 유혹을 받으시며 사람들과 깊은 연대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의 뜻을 첫자리에 두려고 결심한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식별하고 물리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